

[2023년 유아임용 서울 합격수기]

● 자기소개

1. 지역: 서울
2. 응시 횟수 : 3회
3. 경력 : 어린이집 10년 (중 유아반 2년)
4. 환경 : 기혼 / 자녀 없음 / 일병행 (어린이집 연장반)

● 연간 공부 방법

1. 규칙성 만들기

★★ 1년의 장기전이기 때문에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수면, 운동, 식사, 공부 시간을 스케줄표에 적어두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공부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임용시험은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부터 적응시켰어요. 아예 고정된 일과를 살아가니까 계획을 세우는데에 시간을 버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 5시반 기상 - 6시 수영 - 8시 오전 공부 - 12시 점심 - 3시 출근 - 8시반 저녁 공부 - 11시반 취침

★★ 민쌤 연간 커리(개론-각론-문풀-모고)에 맞추어 공부하면서 절대 강의를 1주 이상 밀리지 않게 했어요. 진도에 맞추어 강의를 듣더라도 그와 별개로 개인 공부에서 누적복습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의를 쌓여서 공부에 겁이 나게 되거나 진짜 공부하는 하지 않고 민쌤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간을 채우는 공부'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2. 건강관리하기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각자에게 맞는 운동을 꼭 병행하세요. 초수 때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어 코로나를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여름부터 허리가 아파서 공부에 방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재수 이후로는 운동을 병행했고 중요한 여름 시기를 오랜 시간 앉아서 의지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반기 체력이 찼습니다!	변화가 없이 익숙하게! 그냥! 계속!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장, 남자친구, 가족, 공부환경 등 변화가 없게 그냥 습관처럼 무신경하게 지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과를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 주간 계획 / 시간 활용

★★ 저는 1주일을 단위로 반복되는 계획을 세워서 지냈어요 (모고 기간 주간계획이에요)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운동	직장 모고+논술 & 문풀 & 모고 스터디		모고 오답 논술 오답	(주중에 못한 부분) 회독 & 암기 신체 회독 건강안전 회독									
개 / 각 정의 스터디 교놀이 스터디													
해설서 회독 / 고시문													
백지 회독 & 암기 발달 / 자탐	백지 회독 & 암기 사상 / 의사	백지 회독 & 암기 놀이 / 예경											
출근													
백지 회독			안전모고 풀기										

★★ 월~금은 시기별(개론/각론/문풀/모고)로 고정된 일과로 공부(모르는 것은 표시 후 일요일에 추가 공부)
토요일은 직장 / 일요일은 모르는거 파고들거나 추가 자료 찾아서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

★★ 금 저녁만 휴식 고정 - 나머지는 정해진 휴식 없이 공부

● 시기별 공부방법

★★ 1차 공부 (묵묵하게 갈 길을 간다!)

개론	각론	문풀	모고	시험 1달전	시험 2주전
개론 기본서 정독 고시문&안전교육내용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암기 시작	개론 기본서 누적복습 각론 기본서 정독 + 기출 / 해이실 (강의와 함께 공부 시작)	개론/각론 기본서 누적복습 문풀&강의&복습 기출 재분석	개론/각론 기본서 누적복습 모고&강의&오답 정의쓰기 스테디	개론/각론 기본서 누적복습 + 시험장용 요약본	시험장용 요약본
* 개론만 공부하지 말고 단순 암기를 미리 시작하세요! (단순 암기 인출 속 도가 빨라질수록 모 고에서 유리해요.)	* 누적회독 속도와 분량 을 체크하여 약한 영역 을 찾아 뿌셔야해요! * 암기가 덜 되었다고 기출 강의를 아껴두지 마세요!	* 문풀 미리 구해서 풀 지 마세요! * 강의 부분만 골라풀지 마세요! *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되는 문제를 뿌셔야 해요(오개념 찾기)	* 시간에 맞추어 풀고 답자까지 쓰는 연습을 하세요(시간 관리도 연 습해야 합니다) * 의미가 통하는 답이 아니라 기본서에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 하세요!		

★★ 2차 공부 (민쌤의 자료를 중심으로 스테디원과 경쟁이 아닌 협력하며 공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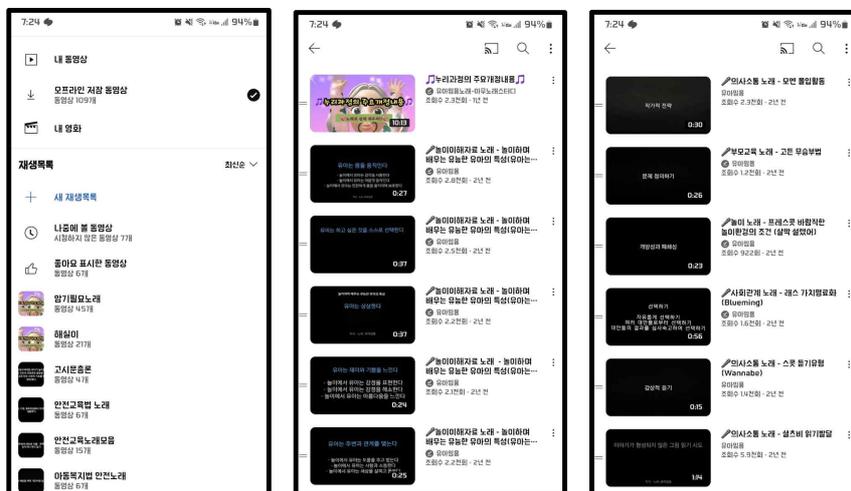
1차 합격 전 스테디	1차 합격 후 스테디	개인공부	면접	과정안	수업실연
(1차 시험 후 시작) *주5일 기출 1세트 (서울/경기/평가원) *시책/뉴스 스테디	주 3회 오프라인 스테디 3세트 촬영 및 피드백 당일 저녁 피드백 반영 재촬영	스테디 쉬는 날) 인성/교육관/경험 2차 기출 연습	스테디 쉬는 날) 민쌤이 주신 자료 개별 공부 및 촬영	매일) 필사 or 작성	민쌤이 주신 자료 개별 공부 및 촬영 / 만능틀 & 발문 보완작업
*1주일만 쉬고 무 조건 스테디를 하세 요! *개별 경험 관련 답 변 생각해주세요!	*2인or3인 스테디 구성 *오프라인으로 긴장된 상황 반복 경험하세요!	*말을 잘하려면 인 풋이 충분해야합니 다!	*1차 합격 전 1달 을 이용해 빈출 3~5개의 답변을 만 들어주세요! ex)창의성증진 활동 인성교육 방법		*자주 나오는 조건 을 어떤 발문으로 드러낼지 구체적으 로 적으며 연습하세 요!

● 스테디

개론	각론	문풀	모고	시험 1달전	시험 2주전
* 백지쓰기 스테디 (요일별로 과목 정해서 백지) * 암기법 공유 스테디 (스테디원이랑 하루 1개씩 공유)			* 정의쓰기 스테디 1. 개각론 각1문제 2. 의사/사관/부/교		스테디 종료

● 암기 방법

★★ 반복만이 살길이다!! 자주 노출시킨다! (암기 노래 / 두문자 / 싱크대 + 화상실 + 핸드폰 메모장)



● 기출 공부

1. 기출 문제 풀기: 빈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영역별로 풀기- 민쌤 기출책 활용)
ex)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 기본동작 유형 / 피아제 도덕발달단계 / 교사 개입 방법 등
2. 강의 듣기: 출제자의 의도나 지문 기술에 따른 답안 기재 방법 파악하기
ex) 음운인식 과제 / 음운인식 하위요소 / 음운인식 유형 / 언어의 구성요소 / 음운론적 요인
3. 연도별 기출 인쇄해서 다시 풀기: 암기 확인 및 답을 채점하며 민쌤의 답과 나의 답이 다른 점을 비교

● 해이실 공부

★★ 민쌤 강의에서 현 교육과정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전 교육과정과의 연결성이나 변화 지점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 분량을 나누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매일 10p정도씩 읽었어요. 반복하여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문장들이 있었고, 시험 2달 전에 가서는 고시문과 내용이해 부분을 연결지어 그대로 외웠어요.

	내용	내용 이해
ex)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유아가 자신을 나타내는 나이, 성별, 모습 등에 대해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로 느끼는 내용이다.

● 슬럼프 극복

★★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날을 미리 앞서서 고민하지 않으려 했어요. 오늘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고 같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묵묵히 '공부를 하는 행동을 쌓아감으로써 극복'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기!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계속 상기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11월의 그날의 나를 믿고 공부를 쌓아갈수록 결국 불안은 줄고 자신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 주간 플래너에서 실행한 내용을 지워가면서 공부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엉덩이 붙이고 계획한 시간 끝까지 앉아있던 나를 칭찬하기, 열풍타 앱에서 공부 누적 시간을 늘려서 00등 안에 들기 등 그날 그날의 작은 목표를 세우며 슬럼프의 시간을 견디는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 하고 싶은 말

1. 모고 점수와 등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11월 그날의 내가 적어낸 답이에요!
2. 1차 고득점이 중요해요! 1차는 10개월을 준비하지만 2차는 3주 만에 갑니다. 긴 1차 준비 기간을 잘 활용하세요! 2차 시험은 1차 점수로 인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최종 합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도 꾸준히 끝까지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쌤 게시판에 제가 사용하던 자료 업로드와 인스타 아이디 기재해두겠습니다. 막막한 어떤 순간에 제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화이팅!!!!

1. 기본서 회독 방법

● 목차로 회독 속도 객관적으로 파악 & 기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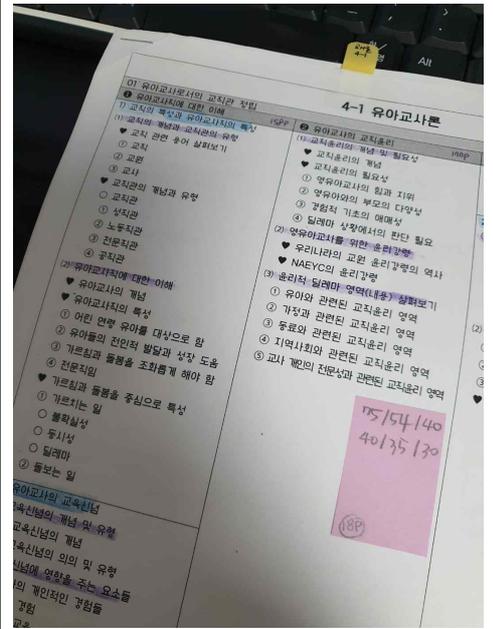
- 개각론 책이 나오면 우선 목차를 정리해서 기본서를 회독할 때 활용했어요. (1월 공부부터 계속 사용)
 - 큰 카테고리(유아교사직에 대한 이해 158p)에도 페이지 수를 적었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러 번 기본서를 열어보게 되는 개념(골만의 정서지능 요인 58p)도 페이지 수를 적어두어서 책을 찾으며 걸리는 시간도 아껴 공부했습니다.

* 목차표 활용법

- ① 내용을 구조화하여 암기할 때 활용
- ② 하반기에는 인출 확인표로 사용
- ③ 개념이 헷갈리거나 인출이 잘 안될 때 다시 기본서를 들춰봐야하는데 그 때 어떤 개념이 몇 쪽인지 빠르게 파악할 때 활용

- ❶ 번호를 기준으로 페이지 수를 적어두고 그 파트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기했어요. 사진의 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부분은 18p인데도 제가 처음에는 75분 걸렸고 점점 30까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보면서 페이지 수는 적는데 이 부분 읽는데 오래 걸리는구나를 파악하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리강령에 대한 기출 중요도가 낮아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파악했고 저 파트 중에서 더 중점을 두어 읽을 부분과 빠르게 속독하며 넘어갈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서 읽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 후반기로 갈수록 기출 중요도가 낮은 것은 매주 회독하지는 않고 2주에 한번만 회독하기도 했어요 / 결국 회독하면서 계속적인 자기 판단이 필요해요

- 누적 복습을 하다보면 특정 영역은 계속 누락되고 특정 영역은 충분히 반복하여 읽게 되어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회독표도 체크했어요 / 예를들어 체크된 내용을 보면 1~4 챕터는 회독 시기마다 읽었는데 읽는데 오래 걸려서 5부터는 못 읽는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 다음 회독 시작 시에는 5~9를 먼저 읽고 1~4를 읽기, 또는 1~9 중에서 1,3,5는 빈출되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읽고 2,3,6~9읽기 등 전략을 세우며 읽는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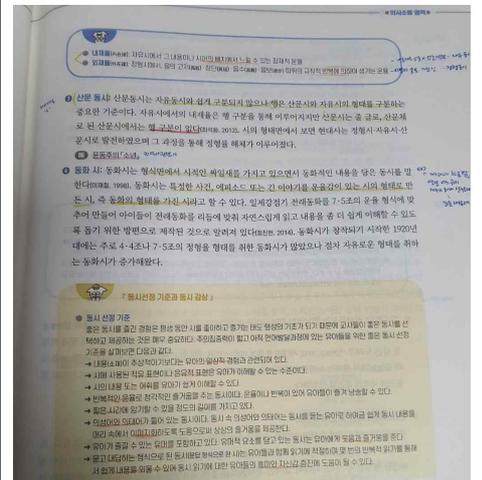
〈개론 회독표〉		
1	1	발달이론
1	2-1	유아교육 사상사
1	2-2	유아교육 프로그램
	3-1	놀이지도
2	3-2	놀이관찰과 기록
	4-1	유아교사론
2	4-2	교수-학습 원리·유치원 평가
	5	아동상담과 부모교육
	6-1	아동권리와 복지
	6-2	유치원의 역사

● 회독 속도가 너무 느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

모두 정독해서 암기하며 읽으려 하면 포기하고 싶어지기 쉽더라고요

①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어 읽기

- 노란 박스 부분은 추가 읽기 자료인 경우로 덜 중요하다고 파악했어요 하지만 상반기에는 발달단계 등이 들어간 노란 박스의 단계명 정도는 외우려고 계속 보기는 했어요.
 - 가능한 모든 내용을 읽는 게 좋지만 암기가 느리거나 후반기에 가서 저런 부분까지 다 읽기 부담될 때, 단계명 정도는 봐야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타 커리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는지 물어보고 자체 판단하여 표시해두었어요 민쌤만 추가로 제시해준 부분은 2번 회독에 한번 정도만 보기 등 전략을 세우며 읽었습니다.
 - 사진에서처럼 의사소통에서 동시는 기출된 부분으로 중요하기는 하나 동화시는 모두 배우는 용어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지요 그러면 용어 정도 유추해낼 수 있게 키워드를 파악하며 읽는거예요.



● 구체적인 누적 복습 주기

- 문풀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기 상관없이 개론에서 각론 목차 순서대로 읽었어요 여름 시기가 되면 어차피 이해를 바탕으로 빠른 회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개씩 읽지 못하더라도 계속 기본서를 읽으며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 월화수목금까지를 누적복습을 하는 날로 정해두었어요. 발달은 월 사상 화수목 이런식으로 잘 안 읽히는 영역은 3일 걸릴 때도 있었고 각론은 4일,5일 걸리는 영역도 있었어요 이래서 언제 다 읽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상반기에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차곡차곡 읽었어요 (이렇게 쭉 읽어두어야 문풀 반에 가서 기본서를 속도내어 읽어야 하는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인 판단을 통한 읽기가 가능해져요)
- 결론은 누적 복습 시기는 자신에 맞추어 설정해야 한다는거예요! 초수일 때는 1달이 걸릴 수도 있고, 재수 삼수면 3주가 걸릴 수도 있겠죠. 약한 영역은 1달에 한번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약점으로 남아있으므로 하루 공부마지막에 특정 개념은 내 복습 주기와 상관없이 다시 열어서 읽어보는 방식으로 누적 복습하였습니다.

● 복습 할 때 사용한 교재

- 9월까지의 기본서를 읽었구요
- 10월부터는 시험장용 요약본 나올때마다 기본서 대신 그걸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월 1주에는 발달, 사상은 배부되었으니까 그건 요약본으로 복습하면서 인출하였고 교사 부모 등은 기본서를 넘기면서 읽는거죠
- 저는 삼수였고 초수때 웹지도를 단권화로 만들어 놓은게 있어서 올해는 단권화를 만드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단권화를 하면 또 기본서를 읽을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